

▶▶ 신간 도서 ◀◀

드러난 삶 이면에 침묵하는 이야기

이동순 시인, 신간 '마을 올레' 발간

이동순 시인이 열여섯 번째 시집 '마을 올레' (모악)을 펴냈다. 그는 1973년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이후, 다양한 삶의 이력과 풍경을 조곤조곤한 시어로 담백하게 드러내 왔다. 이번 시집은 그가 1년여에 걸쳐 대구 KBS TV 기획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탐방한 경북도내 마을 63곳의 궤적을 담았다. '마을 올레'에서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드러난 삶 이면에 침묵하고 있는 스토리다. 퇴락해가는 농촌 공동체 속에서 시인이 발견한 것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꿈 꿔 감춰두었던 삶의 '내력'이었다.



그는 시집에서 변화된 농촌 공동체를 사실적으로 짚어내면서 접근대적 마을 공동체와 근대적 삶의 경계를 촘촘하게 알아낸다.

사라진 자와 남은 자의 경계, 기억되는 자와 기억하는 자의 경계, 상처 준 자와 상처 받은 자의 경계 등이 모든 것들은 마을 공동체에서 하나로 수렴된다. 이를 통해 시인은 '인간의 삶에서/경계니 구분이니 차별이니 하는 따위가/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경계선 중에서) 라는 결론에 다다른다.

박성우 시인은 서평에서 "마을 올레는 사람과 삶과 사람을 한기운데에 둔 시집이다. 편편이 애달프고 정다. 처연하게 정갈하고 정겹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뭐냐고, 나이 들어가는 게 뭐냐고, 어울려 산다는 게 뭐냐고 조곤조곤 말을 걸어오는 진귀한 시편들이다"이라고 했다. /정해은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내일, '전북청소년 연극제' 개최 '휴머니즘', 무대에서 찾다

(사)한국연극협회 전북지회(회장 정두영)는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제21회 전북청소년연극제를 개최한다.

도내 13개 고등학교 연극반· 동아리 팀이 참가하는 이번 연극제는 오는 8월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제21회 전국 청소년연극제 예선으로 치러진다.

연극제는 13일 푸른꿈고등학교의 '곰팡이(정미진 작·박소라 연출)'로 첫 막을 올린다.

작품은 해체된 영민이네 가족의 삶을 비춘다. 갈등과 상처 그리고 화해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이어 14일에는 군산영광여고가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사과와 반성을 담은 '사과' (연극부 자연 공동창작·박주영 연출)를, 전주사대부고는 마음에 상처를 입은 주인공의 가슴 아픈 가족사를 그린 '중이비행기' (장경섭 작·최유나 연출)를 각각 무대에 올린다.

15일 작품으로는 군산동정고의 '그날' (김현채 작·연출)과 군산여고의 '너희와 함께라면' (엄정은 작·김수진 연출)을 선보인다. 무대에는 각각 다른 환경과 가치관을 지닌 인간군상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자랑스러운 여자 옷을 즐겨 입고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준호와 공격적인 탓에 주변에 친구가 없는 화주간의 갈등을 그린 'XXI레오타드 안나수이 손겨울' (박찬규 작·김수민 연출)을, 전주상업정보고는 끝없는 욕망에 사로잡혀 점차 인간성을 상실해가는 현대인의 숨겨진 동물의 본능을 묘사한 '리투아니아' (루퍼트 부르크 작·강송이 연출)를 오는 16일에 공연한다.



오는 13일부터 18일까지 우진문화공간 예술극장에서 제21회 전북 청소년연극제를 연다. 사진은 청소년들이 직접 출연한 연극무대.

도내 13개 고교생 팀 참여
8월 개최 전국대회 예선 치러져

푸른꿈고교 '곰팡이'
군산 영광여고 '사과'
군산여고 '너희와 함께라면'
호남제일고 'FM43.9' 등
사회적 문제·가족간 갈등 담은
작품들 무대에 줄이어 선보

17일 작품을 선보이는 전주여고는 '학교장의 개과천선기' (홍자연 작·since1996 공동연출)에서 외모지상주의가 팽배한 현 세대를 풍자한다. 호남제일고의 'FM43.9' (박정하 작·김병희 연출)은 자신의 삶보다는 가족의 삶과 성공을 위해 살아가던 평범한 주부의 꿈을 찾는 여정을 풀어낸다.

연극열정의 대미를 장식할 전주제일고는 정신병원에 격리된 사람들의 사연을 그린 '탑과 그림자' (이만희 작·이예나 연출)에서 돈과 명예, 지식과 권력을 쫓

는 인간의 욕망을 들춰낸다. 또 이리여고는 세상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아버린 은주가 수녀납과의 따뜻한 만남을 통해 서로를 과거의 상처를 치유한다는 내용을 담은 '방관자 효과' (공지영 원작·한유경 각색·김수희 연출)를 공연한다.

정두영 회장은 "연극은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좋은 기제"라면서 "연극제의 무대 경험은 청소년들에게 인간 존재에 대한 고민과 동시에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올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 본격화

도-전북문화재단, 고창공용버스터미널 리모델링 8월 착수... 9월 말 개소할 듯

전북도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 이병천)은 나후된 버스터미널을 문화공간으로 재조성하는 '2017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 조성사업'의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단체를 선정하는 등 사업 본격화에 나섰다.

'여객자동차터미널 아트공간'은 단순한 문화 공간 조성 이 아닌 민간과 연계한 네트워크 협업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는 물론 터미널을 매개로 주민의 문화적 행동반경을 넓히기 위한 사업이다.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사업은 지난달 고창공용버스터미널과 무주안성시외버스터미널을 선정하고

1차적으로 고창공용버스터미널(가칭 문화터미널 고창)의 사업을 진행 중이다.

'문화터미널 고창'은 오는 8월 리모델링 작업을 시작해 9월 말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화공간은 개소 전후로 전시 및 공연 등 주민참여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와 관련 재단은 문화공간 조성에 힘을 싣고자 오는 16일 전북도·고창군·터미널 관계자 및 아티스트·프로그램 운영단체 등과 함께 관계자 워크숍을 진행한다.

/정해은 기자



웅장하고 화려한 하모니로 최고 감동 선사한다

국립합창단 '베르디 레퀴엠'
내달 1일 군산예술의전당서

국립합창단원 160여명의 웅장하고 화려한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최고의 감동을 선사할 '베르디 레퀴엠'이 오는 7월 1일 군산예술의전당에서 펼쳐진다.

군산예술의전당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2017년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을 통해 세계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국립합창단의 무대가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진행된다고 밝혔다.

'베르디 레퀴엠'은 수많은 레퀴엠 중에서도 단연 최고의 레퀴엠이라 불리는 곡으로 이탈리아 낭만주의의 거장이자 베르디가 존경하던 음악가 로시니와 만초니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 1874년 완성한 웅장한 규모의 곡으로 네 명의 독창자, 혼성 4부 합창, 대편성 오케스트라가 필요하며 총 연주 시간은 약 90분에 달한다.

이번 공연은 160여명의 출연진으로 국립합창단과 함께 부산시립합창단, 전주시립합창단의 합동무대로 꾸며질 예정이며, 소프라노 오미선, 알토 추희명, 테너 신동원, 베이스

우주호 씨가 팔색조의 매력을 뽐내며 한 편의 멜로드라마 같은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연은 전석 1만원으로 금강방송과 티켓링크를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국비공모사업으로 소의계층 30%를 초청하여 문화민족도 증진에 기여할 예정이다. /군산=장현 기자

근대역사박물관, '포커스-99 작품사진전' 개최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박물관이 되기 위한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의 새로운 시도가 시작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박물관 내 전시공간을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민 열린갤러리'로 조성, 지난 10일부터 그 첫 번째 전시로 '사진동인 포커스-99 작품사진전'이 개최되어 군산시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에서는 내향, 철길, 육산 구불길 등 낯익은 군산의 풍경들과 향토적 서정성을 담아 낸 회원들의 작품들이 박물관 전시공간을 통해 방문객들과 만나게 된다. /군산=장현 기자

www.fbo.or.kr 2017년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안내

농지은행이 경영위기 농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농업재해 또는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는 "농지은행"에 농지를 팔아 부채를 상환하고, 그 농지를 임차하여 계속 영농하면서 다시 사실 수 있습니다.

- **지원자격**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부채금액이 3천만원 이상
 - 최근 3년 이내 기간 중 농업재해로 연간 농가피해율이 50% 이상
- **매입대상**
 - 공부상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지
 - 부지 지목이 논, 밭, 과수원인 농업용시설(고정식온실, 축사, 버섯재배사)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및 경영희생계획서 등 지원심사에 필요한 관련 증빙자료

※ 서식: 한국농어촌공사 지사 비치 및 농지은행 홈페이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어촌공사 시·군지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대표전화: 1577-7770, 홈페이지 www.fbo.or.kr)